

조리 실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의사 소통 모형 개발 - 구성주의 관점에서 -

김 태 형[¶], 나 정 기^{*}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외식조리과

The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Model for Teaching-Learning in Culinary Practical Education - A Constructivism Point of View -

Tae-Hyeong Kim[¶], Jeng-Ki Na^{*}

Dept. of Culinary Arts, Woosong Information College

**Dept. of Foodservice & Culinary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munication model of teaching-learning at culinary practical learning class in school. Statistically,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ulinary schools was influenced by the nature of hierarchical culture, task outcomes, and the conservative culture of organizations in companies. First, in basic skill clas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based on a teacher who leads students according to his plans and decisions. Second, in a higher skill cours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based on students who take an active part by injecting some fresh ideas into their class. Third, the model of three courses for culinary skill development has an effect on processing into a modeling-scaffolding-fading method by teaching and learning in school. It was ascertain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culinary schools. Moreover,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biggest influencing concept for communication effectivenes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Key words : culinary arts, education, organizational culture, teaching-learning, communication.

I. 서 론

제 7차 교육 과정(교육부 2000)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의 창의성 신장이라는 취지 아래 10개 국민 공통 필수 교과가 제정되었다. 이는 학생보다는 교사 주도의 하향적인 지시적 의사 소통(directive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쌍방

적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상향적 의사 소통과 조직 내의 수평적 의사 소통, 즉 상호작용적 의사 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을 중요시하여 의사 소통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김성국 2003). 부연하자면, 교육의 효율성은 교수자와 학생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교수-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관광 선진국들은 과거의 이론 교육 중심에서 실

¶ : 교신저자, 011-9429-3905, knifelife@hanmail.net, 대전 동구 자양동 226-2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무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현장 실무를 익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진양호 2001). 김근중(2006)은 호텔, 외식, 조리 분야의 학생들은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은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인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업 현장과 교육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조리 분야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분야의 변화를 통해 관련 직종의 탐색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식산업의 발달과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라 관련 직종의 변화 주기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장명희 2005). 즉, 산업 현장과 조리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가 조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석태(2007)는 조리사 교육은 산업체 현장의 조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호텔조리사 조직이 직무와 직급이 분명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 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조리사 조직의 위계 질서와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도제 중심의 문화가 조리 교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조리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규율과 정신 자세, 태도 등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지식·기술 전달 방식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 소통방식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전문인 양성을 하기 위한 최근의 교육계의 동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점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조리사의 조직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으며, 특히 조리사 교육에 대한 연구들 중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를 가진 조리사 조직 문화 변수가 조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조리사 실기 교육과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 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 기초, 중급, 고급 조리 실기 과정별로 교수와 학생 간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구성주의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최근 교육학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이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수·학습 이론이 수업자가 객관화된 지식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구성주의 이론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을 구성하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생은 지식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김성기(1994)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은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지식의 전달을 강조하며, 학습자 스스로 의미있는 지식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전이를 지원하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성 중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객관적인 사고력을 높여주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안미숙(1995)의 연구는 한국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개발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지금까지 주로 이론적인 수준에서 상이한 주장을 제시해 온 전통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직업 기술 교육 과정 개발이 어느 관점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관점의 타당성과 제한점을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Brooks & Brooks(1993)는 전통적 교실과 구성주의 교실을 대비하는 연구를 통하여 협동학습, 학생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교수-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천호 2000). Vygotsky(1994)가 주창한 ‘근접발

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간의 거리를 말한다.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바라본 교사는 듣는자(listener)요, 안내자(guide)요, 조력자(helper)요, 촉진자(facilitator)요, 용기부여자(encourager)요, 지지자(supporter)다(황운환 1997). Brown & Collins & Duguid(1989)는 교사의 '시연 단계(modeling)',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틀을 제시하는 '교수적 도움 단계(scaffolding, coaching)',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교수적 도움의 중지 단계(fading)' 과정을 도입하였다.

2. 의사 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

의사 소통을 통한 교수와 학습 방법으로 잘 알려진 Skinner(1958)의 논문 '교수 기계(Teaching Machines)'에서 학생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학생이 새로운 형태의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된다는 의미이다. John(1993)는 직업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직원간의 협동을 요하는 팀워크, 의사 소통 능력,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요소가 핵심적인 기능, 집단적 기능, 조직 내에서의 기능, 환경 적응력 등 중층구조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의 직업 능력 이외에 학습하는 기능(learning skills)과 사회적 기능(life skills)까지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Cunningham 등은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학습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어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Lebow는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규명해 봄으로써 자신이 가진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인정하게 되는 지식 획득을 강조하고 있다(변영계·

김광희 2000). 교육의 공급자인 국가나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인 학생에게 두는 교육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학습의 기법이 지닌 의사 결정 모형의 차원을 넘어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며 상호작용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서 바라본 의사 결정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조난심 2001). 장재성(2003)은 '기술 교육 교육 과정 구성의 지향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 교육 방법은 일반 목표 수준에 따라 수업의 전략적 접근은 문제 해결 접근, 창의적 사고 촉진 접근 등과 수업 방향은 프로젝트법, 브레인스토밍 등을 제시한다. Ross & Catherine & Bruce(2006)의 '교수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수 효과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미래의 학습 능력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조리사 실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조리사 조직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과 실기 기능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리사 교육에 중심에 있는 교수와 학생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조리사 양성은 실무적인 기술 배양을 위한 전통적인 도제방식의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더불어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예술적인 다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Buckley & Jin(1995)의 연구에 의하면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과 더불어 태도(attitude)를 포함하고 있다. Clark(2001)의 연구는 조리 기능·기술 습득에 있어서 스승(mentor)이 격려와 도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은 Mentoring 관계의 측면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리 교육의 목적이 조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서, 이 능력은 단순히 ‘전달’되거나 이해를 통하여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리 행위를 수행해 봄으로서 ‘기능과 기술이 습득되고 개발’된다는 점에서 조리 기능 및 기술 습득 교육 방법은 일반 지식의 교육 방법과 다르다고 하겠다(박경곤 2004). 조리사에 대한 교육은 조리사 조직 문화와 장인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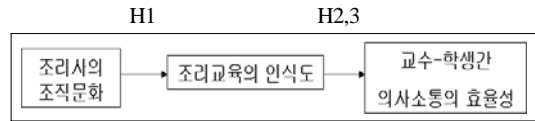
Ⅲ. 조사 설계

1. 조사 방법

직장 내 조리사의 조직 문화가 학교의 조리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교수 학생 간 의사 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의사 소통에 필요한 의사 소통 모형을 제안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조리사의 조직 문화가 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리사의 직급, 체계, 급여 등의 인사 조직을 잘 갖추고 조직구조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 지역의 S, G, I, L, M, P, W 특급호텔의 조리팀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Gagne(1970)의 기본이론 모형을 수정하여 외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조리사의 조직 문화를 설정하였으며, 내적 요인으로 조리 교육 기관 내부나 조리사가 가지고 있는 조리학교 문화, 교수-학생 간의 의사 소통 정도 그리고 조리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리 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정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조리학교 교육에 외적 영향을 주는 원천으로 조리사의 조직 문화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 요인으로 조리학교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조리사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투입하였다. 이들 탐색적인 가설



<그림 1> 연구 모형.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조리사 조직 문화의 특성들은 조리사 교육이 직장 내에서 직급과 경력 위주로 수직적 구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리사의 대학 교육 역시 조리사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리사의 조직 문화는 조리 교육의 인식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조리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교수-학생 간의 의사 소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교육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 소통은 조리 실습 과정(기초-중급-고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3-1 기초 과정은 교수 중심으로 의사 소통 될 때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다.

3-2 기초 과정에서는 도제(徒弟) 중심 교수 학습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이다.

3-3 고급 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의사 소통될 때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다.

3.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내·외적 지향 차원과 조직의 질서 차원으로 2차적 기준을 제시하여 나타난 신재흡(2001)의 학교 조직 문화에 관한 질문지, 학교 문화 조직 문화의 하위 변인으로 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합리적 문화, 보존적 문화 등 4개의 하위 변인을 사용한 나병선(2001)의 대기업 집단의 학습 조직과 조직 문화, 조직 학습, 조직 유효성의 관계분석 중 조직 문화와 조직 학습에 관한 질문지, 김경이(1995)의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연구 중 의사 소통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구분	변수명 및 측정항목	선행 연구	비고
조리사 조직 문화	· 수직적 · 보수적 · 과업 중심 · 경험	신재흡(2001)	20문항(5점 척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	· 학교 조직 문화, · 학교 조직 문화의 하위 변인	나병선(2001)	10문항(5점 척도)
개별성, 창의성	· 친화적, 합리적, 보존적 문화	곽상기(2004)	20문항(5점 척도)
의사 소통의 효율성	·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	김경이(1995)	10문항(5점 척도)

구의 예비설문은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조리학과에서 조리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40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후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것을 제외한 287부를 데이터 코딩을 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신뢰도 값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리사의 조직 문화가 교수-학생 간 의사 소통 방법에 미치는 영향과 조리 교육에 대한 연계 개념들 사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및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표 2〉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중 나이, 유학 년수, 실무 경력에 대한 평균이다. 나이는 최소값이 20세, 최대값이 50세이었으며, 평균 31.32세이었다. 유학 년수는 최대 5년으로 평균 1.97년이었 고, 실무 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6년으로 평균 7.56년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243명(84.7%), 여성이 44명(15.3%)으로 응답자 중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변수	빈도	유효퍼센트	구분	변수	빈도	유효퍼센트
성별	남	243	84.7	유학 경험	있다	42	14.7
	여	44	15.3		없다	245	85.3
학력	박사	2	0.7	연령	50대 이상	1	0.34
	석사	26	9.0		40대	24	8.36
	학사	85	29.6		30대	147	51.24
	전문학사	170	59.2		20대	115	40.06
	무응답	4	1.3				
근무 년수	15년 이상	18	6.3	진공	한식	69	24.0
	11~15년	55	19.2		양식	133	46.3
	5~10년	96	33.4		제과제빵	37	12.9
					일식	27	9.4
	5년 이하	118	41		중식	18	6.3
			기타	3	1.0		
		합계				287	100.0

학 졸업이 170명(59.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85명), 석사(26명), 박사(2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양식이 133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식이 69명(24.0%), 제과제빵이 37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일식은 27명(9.4%), 중식은 18명(6.3%)이었다.

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 조리 기초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의 효율성

〈표 3〉은 조리 기초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 효율성 관련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항들은 3가지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요인부하량도 0.4~0.8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α 값이 0.410에서 0.613으로 부분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변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변수를 향후 기초효율성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2) 조리 중급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의 효율성

〈표 4〉의 요인분석 결과는 2가지의 요인으로 묶임을 알 수 있다. 요인 부하량도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

〈표 3〉 조리 기초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 효율성 요인분석 결과

	성분		
	1요인 효율성 1(학생 중심)	2요인 효율성 2(교수 중심)	3요인 효율성 3(개별 실습)
교수 개인 지도보다 팀워크 학습	.525	-.011	.225
교수는 학생 의사 결정에 보조적 역할	.733	-.053	.046
독창성 배양하도록 학생 자율 수업	.732	-.086	-.067
실무처럼 학생이 의사 판단하는 방식	.675	.339	-.129
기술 습득보다 정신 자세가 강조	.129	.779	-.128
교수 중심의 수업 방식이 효과 큼	-.072	.765	.080
교수가 학생 실습 관리 감독 시 학습 효과 큼	-.046	.506	.398
교수 시범을 따라 할 때 학습 효과 큼	-.142	.239	.705
학생 개인별 실습	.242	-.183	.766
Cronbach α	.613	.573	.410

〈표 4〉 조리중급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의 효율성 요인분석 결과

	성분	
	1요인 효율성 1(학생 중심)	2요인 효율성 2(교수 중심)
학생 개인별 실습	.534	.173
교수 개인 지도보다 팀워크 학습	.634	.001
교수는 학생 의사 결정에 보조적 역할	.747	-.040
독창성 배양하도록 학생 자율 수업	.691	-.271
실무처럼 학생이 의사 판단하는 방식	.636	.130
기술 습득보다 정신 자세 강조	.135	.670
교수가 중심이 되는 수업 방식 효과 큼	-.035	.814
교수 시범을 따라 할 때 학습 효과 큼	-.061	.755
Cronbach α	.659	.648

과 각각의 α 값이 0.6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 변수를 향후에 중급효율성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3) 조리 고급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의 효율성

마지막으로 조리고급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 효율성에 관련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것이 <표 5>이다. 요인 부하량 값이 0.4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 항목들도 신뢰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각각의 α 값이 0.6~0.7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척도를 구성한 것이다. 향후 이 변수를 고급효율성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3. 회귀분석

위의 요인분석 결과, 묶인 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 4까지는 조직 문화의 요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리 교육 인식도, 조리관련학과의 문화, 의사 소통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은 조리사의 조직 문화, 조리 교육인식도, 조리 관련학과 문화, 의사 소통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 소통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모형은 종속변수를 기초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각 과정

의 의사 소통 효율성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은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

모형 1-1에서 사용된 11개의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인식도 5, 학과 문화 3, 의사 소통 1이었다. 즉 인식도 5(창의성, 만족도) 과 학과 문화 3(수직성) 그리고 의사 소통 1(친화성)이 높아질수록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1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모형의 R^2 값은 0.144로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에 대해 14.4%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2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인식도 1, 인식도 5, 학과 문화 4이었다. 즉 인식도 1(상명하복), 인식도 5(창의성, 만족도), 학과 문화 4(교수 중심)이 높아질수록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는 높아진다. 모형의 R^2 값은 0.253으로 이 변수들이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에 대해 25.3%를 설명함을 뜻한다. 그리고 모형적합도도 유의미하였다.

모형 1-3에서 사용된 13개의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학과 문화 1, 학과 문화 4이었다. 학과 문화 1(친화성)과 학과 문화 4(교수 중심)이 높아질수록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

<표 5> 조리 고급 실습 과정별 의사 소통의 효율성 요인분석 결과

	성분		
	1요인 효율성 1(학생 중심)	2요인 효율성 2(교수 중심)	3요인 효율성 3(창의성)
교수 개인 지도보다 팀워크 학습	.487	.047	-.157
교수는 학생 의사 결정에 보조적 역할	.880	-.083	.157
독창성 배양하도록 항상 자율 수업	.711	-.115	-.158
실무처럼 학생이 의사 판단하는 방식	.676	-.003	-.194
기술 습득보다 정신 자세 강조	.138	.569	-.271
교수가 중심이 되는 수업 방식 효과 큼	-.175	.861	-.003
교수 시범을 따라 할 때 학습 효과 큼	-.224	.823	-.028
교수가 학생실습 관리 감독시 학습 효과 큼	.421	.577	.258
학생 중심으로 의사 결정 자유롭게 함	.186	-.010	-.740
학생 개인별 실습	.019	.068	-.814
Cronbach α	.722	.680	.613

〈표 6〉 기초 조리 과정의 의사 소통 효율성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I

모형	b	β	R^2	F
상수	1.423			
인식도 1(상명하복)	.002	.002		
인식도 2(학력)	.001	.001		
인식도 3(경직성)	.042	.048		
인식도 4(보수성)	-.013	-.014		
인식도 5(창의성)	.139**	.172	.144	4.196***
학과 문화 1(친화성)	-.049	-.054		
학과 문화 2(남성성)	.020	.024		
학과 문화 3(수직성)	.133*	.138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081	.094		
의사 소통 1(친화성)	.165**	.169		
의사 소통 2(보수성)	.069	.077		
상수	1.423			
인식도 1(상명하복)	.002	.002		
인식도 2(학력)	.001	.001		
인식도 3(경직성)	.042	.048		
인식도 4(보수성)	-.013	-.014		
인식도 5(창의성)	.139**	.172	.253	8.482***
학과 문화 1(친화성)	-.049	-.054		
학과 문화 2(남성성)	.020	.024		
학과 문화 3(수직성)	.133*	.138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081	.094		
의사 소통 1(친화성)	.165**	.169		
의사 소통 2(보수성)	.069	.077		
상수	1.423			
인식도 1(상명하복)	.002	.002		
인식도 2(학력)	.001	.001		
인식도 3(경직성)	.042	.048		
인식도 4(보수성)	-.013	-.014		
인식도 5(창의성)	.139**	.172	.168	5.059***
학과 문화 1(친화성)	-.049	-.054		
학과 문화 2(남성성)	.020	.024		
학과 문화 3(수직성)	.133*	.138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081	.094		
의사 소통 1(친화성)	.165**	.169		
의사 소통 2(보수성)	.069	.077		

* $p < 0.05$, ** $p < 0.01$, *** $p < 0.001$.

율성 3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모형 1-2의 R^2 값은 0.168로 기초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에 대해 16.8%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과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학생 중심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묶은 기초 과정 효율성 1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은 창의성, 친화성 등의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 소통 1(친화성)이었다.

모형 1-2 교수 중심의 의사 소통 효율성을 살펴보면 기초 과정 효율성 2, 즉 교수 중심의 문항들을 묶어 놓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은 역시 상명하복, 교수 중심 등의 문항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인식도 1(상명하복)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모형의 종속변수와 유사하게 교수 중심의 문항들을 묶어놓은 종속변수인 기초 과정 효율성 3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등임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소통 효율성이라는 변수에 다양한 독립변수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 보수적이거나 경직된 문화나 의사 소통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도 교수 중심의 문항이었다. 반대로 친화성 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학생 중심의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1에서 사용된 11개의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모형의 R^2 값은 0.074로 중급 과정의 의사 소통 효율성에 대해 7.4%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 2-2에서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변수는 인식도 5, 학과 문화 2, 학과 문화 4이었다. 즉 인식도 5(창의성, 만족도), 학과 문화 2(남성성), 학과 문화 4(교수 중심)가 높아질수록 중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는 높아진다. 그리고 모형의 R^2 값은 0.182로 중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의 18.2%를 설명해준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 중심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중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1보다는 교수

주도의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중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가 남성성, 교수 중심의 학과 문화의 독립변수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후자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응답자의 인식에 교수 주도의 학과 문화가 더 유의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3-1에서 사용된 11개의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모형의 R^2 값은 0.094로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1에 대해 9.4% 설명하였다. 모형 3-2에서 종속변수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에 유의미한 변수는 인식도 5와 학과 문화 1, 학과 문화 4이었다. 인식도 5(창의성, 만족도), 학과 문화 4(교수 중심)가 높아질수록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는 높아진다. 학과 문화 1(친화성)이 높아질수록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는 낮아진다. 이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학과 문화 4로 0.443이었다. 모형 3-2의 R^2 값은 0.185로 전체모형을 18.5% 설명해준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모형 3-3에서 종속변수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3에 유의미한 변수는 인식도 4이었다. 즉 인식도 4(보수성)가 높아질수록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3은 낮아진다. 모형 3-3의 R^2 값은 0.058로 전체모형을 5.8% 설명해준다.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본 기초 과정과 중급 과정처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유의미한 모형이었던 모형 3-2를 보면 교수 중심의 인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종속변수인 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와 마찬가지로 학과 문화 4(교수 중심)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교수 중심의 문화는 교수 중심의 의사 소통 효율성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4. 실기 교수-학습 모형

조리사의 인식도와 조리 실습 단계별(기초-중급-고급)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수적인 성향이

〈표 7〉 기초 조리 과정의 의사 소통 효율성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II

	모형	b	β	R^2	F
모형 2-1 <학생 중심> (Dep=중급 과정의사 소통 효율성 1)	상수	2.261			
	인식도 1(상명하복)	-.007	-.007		
	인식도 2(학력)	.012	.015		
	인식도 3(경직성)	.045	.057		
	인식도 4(보수성)	.014	.016		
	인식도 5(창의성)	-.043	-.060	.074	1.997*
	학과 문화 1(친화성)	.062	.077		
	학과 문화 2(남성성)	-.011	-.015		
	학과 문화 3(수직성)	.074	.086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094	.122		
의사 소통 1(친화성)	.103	.118			
의사 소통 2(보수성)	.018	.022			
모형 2-2 <교수 중심> (Dep=중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	상수	2.261			
	인식도 1(상명하복)	-.007	-.007		
	인식도 2(학력)	.012	.015		
	인식도 3(경직성)	.045	.057		
	인식도 4(보수성)	.014	.016		
	인식도 5(창의성)	-.043	-.060	.182	5.564***
	학과 문화 1(친화성)	.062	.077		
	학과 문화 2(남성성)	-.011	-.015		
	학과 문화 3(수직성)	.074	.086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094	.122		
의사 소통 1(친화성)	.103	.118			
의사 소통 2(보수성)	.018	.022			

* $p < 0.05$, *** $p < 0.001$.

높은 경우 실습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즉 전통적인 조리 교육의 방법(엄격성, 수직성)이 적용될 때 효과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고급 과정에서는 창의성, 남성적, 엄격성, 교수 주도가 높을수록 의사 소통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고급 과정은 보다 자율적이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V. 결 론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 자율화, 다양화, 개성화, 한 자녀

가정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조리사 조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조리 교육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은 어려워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리사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조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수성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조리사 조직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가장 효율이 높은 조직 구조로 변모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표 8〉 기초 조리 과정의 의사 소통 효율성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III

	모형	b	β	R^2	F
모형 3-1 <학생 중심> (Dep.=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1)	상수	-1.963			
	인식도 1(상명하복)	.099	.057		
	인식도 2(학력)	-.149	-.096		
	인식도 3(경직성)	.145	.098		
	인식도 4(보수성)	-.040	-.025		
	인식도 5(창의성)	.020	.015	.094	2.598**
	학과 문화 1(친화성)	.158	.104		
	학과 문화 2(남성성)	.113	.080		
	학과 문화 3(수직성)	.075	.046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146	.100		
의사 소통 1(친화성)	.048	.029			
의사 소통 2(보수성)	-.067	-.044			
모형 3-2 <교수 중심> (Dep.=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2)	상수	-1.963			
	인식도 1(상명하복)	.099	.057		
	인식도 2(학력)	-.149	-.096		
	인식도 3(경직성)	.145	.098		
	인식도 4(보수성)	-.040	-.025		
	인식도 5(창의성)	.020	.015	.185	5.693***
	학과 문화 1(친화성)	.158	.104		
	학과 문화 2(남성성)	.113	.080		
	학과 문화 3(수직성)	.075	.046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146	.100		
의사 소통 1(친화성)	.048	.029			
의사 소통 2(보수성)	-.067	-.044			
모형 3-3 <창의성> (Dep.=고급 과정 의사 소통 효율성 3)	상수	-1.963			
	인식도 1(상명하복)	.099	.057		
	인식도 2(학력)	-.149	-.096		
	인식도 3(경직성)	.145	.098		
	인식도 4(보수성)	-.040	-.025		
	인식도 5(창의성)	.020	.015	.058	1.532*
	학과 문화 1(친화성)	.158	.104		
	학과 문화 2(남성성)	.113	.080		
	학과 문화 3(수직성)	.075	.046		
	학과 문화 4(교수 중심)	.146	.100		
의사 소통 1(친화성)	.048	.029			
의사 소통 2(보수성)	-.067	-.044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효율적인 교수-학습 의사 소통 과정

	교수/학생간 수업 의사 결정력	학생간의 관계력	구성주의* 교수 학습법 단계	교수 학습법
초급	TDP*>SDP**	SRC***:weak	Modeling(시연단계)	일체학습
중급	TDP=SDP	SRC:medium	Scaffolding (교수적 도움 단계)	집단학습
고급	TDP<SDP	SRC:strong	Fading (교수적 도움 중지단계)	개별학습

* TDP(Teacher Decision-making Power).

** SDP(Student Decision-making Power).

*** SRC(Students Relationship in the class).

자료: Brown, J. Collins, A. Duguid, P.(1989) :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32-41.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조리사의 효율적인 기술 전달과 직업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Buckley & Jin(1995)의 연구에서 기술과 지식과 더불어 태도가 능력 배양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리 기초 과정은 조리사로서의 직업관, 정신 자세, 가치관, 그리고 기본적인 조리 기술에 대한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지도 방식의 교수 중심의 의사 소통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급, 상급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조리사의 예술적 창의성, 독창성, 협동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조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John(1993)의 연구에서 직업 능력 개선을 위한 의사 소통, 협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과 일치한다. 즉, 조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 소통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장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엄격한 교육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력, 창의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방향으로의 교육 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 소

통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모형 연구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조리사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나 관련 연구 자료의 부족과 조리 교육 전반적인 연구가 아닌 조리 실기 교육으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리사의 교육이 조리사 고유의 문화적 영향과 기술과 지식 개발의 특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리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철학, 조리교수법, 교육 과정, 교수-학습, 조리 관련 이론 및 실기 과목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경이 (1996) :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2. 김근중 (2006) : 산업체 현장 실습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2(3):75-90.
3. 김성기 (1994) : 구성 중심 수업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3-178.
4. 김천호 (2000) : 구성주의 교수 학습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5. 나병선 (1992) : 대기업 집단의 학습 조직과 조직 문화, 조직 학습, 조직 유효성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6. 박경곤 (2004) : 조리숙련형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4-197.
7. 변영계 · 김광휘 (2000) :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서울, 29-30.
8. 신재흡 (2001) : 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교 조직 문화 및 학교 조직 효과성간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29.
9. 오석태 (2003) : 호텔조리사 문화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7.
10. 오석태 (2007) : 호텔조리사 조직의 임파워먼트 인식정도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3(1):11-23.
11. 안미숙 (1995) : 교육 과정 개발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6.
12. 장재성 (2003) :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한 기술 교육 교육 과정 구성의 지향 모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3.
13. 장명희 (2005) : 조리 교육의 운영 실태와 체계적인 조리인력 양성방안. *한국조리학회지* 11(2): 48-66.
14. 조난심 (2001) : 21세기 학교교육과정의 전개방향. *한국교육연구* 7(1):20-36.
15. 진양호 (2001) : 대학에서 관광교육제도의 OJT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7(1): 31.
16. 황윤한 (1997) : 21세기 교육대학교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모색: 구성주의에 기초하여. *초등교육연구학회지* 11:38.
17. 교육부 (2000) : 초, 중등학교 교육 과정-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부 교육 과정 정책과, 경기, 11-14.
18. Brwon J · Collins A · Duguid P (1989) :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32-41.
19. Buckley R · Jin Caple (1995) :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ining, London. Kogan Page, 29-30.
20. Brwon J · Collins A · Duguid P (1989) :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1.
21. Johnes G (1993) : The Economics of Education. Macmillan, London, 143-144.
22. John A. Ross · Catherine D. Bruce (2006) : Teacher self-assessment : A mechanism for facilitating professional growth,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4-5.
23. Gagne RM (1970) : The Conditions of Learning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kinston.
24. Skinner BF (1958) : Teaching machines. *Science* 128:969-77.
25. Vygotsky LS (1978/1994) :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조희숙의 옮김, 사회 속의 정신: 고등심리과정의 발달. 성원사, 서울, 130.

	2008년 7월 17일	접	수
	2008년 9월 1일	1차 논문수정	
	2008년 11월 7일	2차 논문수정	
	2008년 12월 2일	3차 논문수정	
	2008년 12월 15일	게재확정	